

## 여름봉장 6-9월 가시응애번식 최성기, 요주의

가시응애는 꿀벌응애와는 달리 꿀벌 성충몸에 부착하여 기생하지 않고 대부분의 활동을 봉개소방 안에서 기생번식하고 일부분만이 새로운 봉개소방을 찾아 소비면을 빠르게 기어 다닌다. 가시응애 기생번식은 소방이 봉개되기 전에 소방에 들어가 섭식을 하면서 번식을 계속하는데 한 마리의 가시응애가 성충으로 발육되는 단계를 보면 알(0.3~0.4일) → 유충기(0.3~0.6일) → 전약충기(1.7~2.2일) → 후약충기(3.0~3.7일) 단계에 약 6일의 기간을 거쳐 성충으로 발육되면서 반복된 번식이 이뤄지고 있다.

성충의 수명 또한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적온도는 31~36℃로서 온도에 따른 평균 수명은  $\Delta 9.8 \sim 12.7^\circ\text{C}$ 에서 1.9~3.7일  $\Delta 31 \sim 34.5^\circ\text{C}$ 에서 8.4~9.6일  $\Delta 36.3^\circ\text{C}$ 에서 6.8일이다. 또 계절별 밀도변동을 보면 6월에 발생하여 7월 중순 이후까지 볼 수 있고 차츰 기생율이 증가하여 9월 중순에 최고에 달하고 11월 상순 이후 외기온이 10℃이하로 내려가면 기생밀도는 아주 낮아진다.

이상과 같은 가시응애의 기생밀도를 보더라도 6월 이후의 가시응애 구제대책, 즉 아카시아 직후의 시기야말로 봉군 월하대책과 함께 가시응애 방제에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말자.

아카시아 유밀기 직후엔 거의 모든 소비(巢脾)들이 봉개충이 없는 노출된 이 때 단발로서 약제처리를 끝내줘야만 봉군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약품의 오남용 없이, 매번 똑같은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오는 내성(耐性)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친 경우는 아무래도 꺼림직한 생각을 피할 수 없다. 여름벌 관리중에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소방 안에 숨은 가시응애 기생번식은 꿀

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는 아무래도 전자보다 몇배의 약품비용 소모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제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다.

### 訃音



밀양양봉원을 창업한 박상수 선생이 지난 5월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향년 84세,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 전화 0527-354-2572) 고인은 빈농 출신으로 학력은 무학이면서도 남달리 기계를 만지고 다루는데 재능이 있었다 한다. 20대 초반 나이(일제시대)엔 정미소의 발동기와 농기계는 물론 목탄가스를 발생시켜 기계를 움직이는 청년으로 영남 일대에 선 명성이 높았으며, 20대 후반 나이엔 양봉업을 시작했다.

그당시 소초를 구입해 써보니 가격이 비싸고 품질도 형편없어 국산 소초를 만들 결심으로 4~5년간 소초기계 제작에 몰두 실패를 거듭한 끝에 국산 소초제작기 제작에 성공, 10여대의 소초제작기를 동아양봉원 2대, 고려양봉원 1대, 장춘양봉원 1대, 광주대동양봉원, 논산양순천씨, 강릉, 영주 등에 공급하여 당시 어려웠던 시절 소초수급에 획기적인 길을 터 놓았다. 이뿐만 아니라 32정보의 산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기도 해 장인정신이 투철한 우리나라 제1세대 전업 양봉가이기도 했다. 일찍이 가업을 장남 박영순 씨에게 대물려 주어 가업의 정통성을 있게 했는데 박영순 회원 역시 선친의 유업에 따라 소초라면 선두자리를 지키며 재래봉 소초, 응봉저 생산용 응봉소초 등을 개발 공급하는데 온 정열을 쏟고 있다.